

홋카이도·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

‘홋카이도·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’은 선사 시대 일본인들이 토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한 곳에 정착해 생활하고 발전하며 성숙에 이르는 1 만 년에 걸친 역사를 말해줍니다.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엿보이며, 각 마을들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 주기도 했습니다. 출토품으로는 옷칠한 팔찌, 비취 구슬, 표정이 풍부한 토우, 다양한 양식의 장식 토기 등이 있습니다. 각 유적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새로운 발견이 탄생했습니다.

‘홋카이도·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’을 구성하는 17 개의 유적과 더불어 2 개의 추가 유적이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됩니다. 해안가나 강 근처 또는 언덕 위에 자리한 이들 유적의 특징은 주변의 다양한 자연환경에 있습니다. 대부분의 유적은 자유롭게 걸어서 견학할 수 있으며 조몬 시대(기원전 13,000 년~기원전 400 년)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출토품이 전시된 시설이 병설되어 있습니다.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인 오다이야마모토 유적부터든, 환상 열석의 어느 하나부터든 원하는 순서대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. ‘홋카이도·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’에서 조몬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